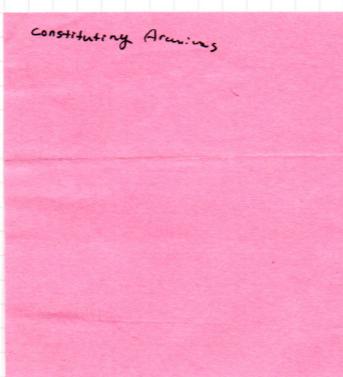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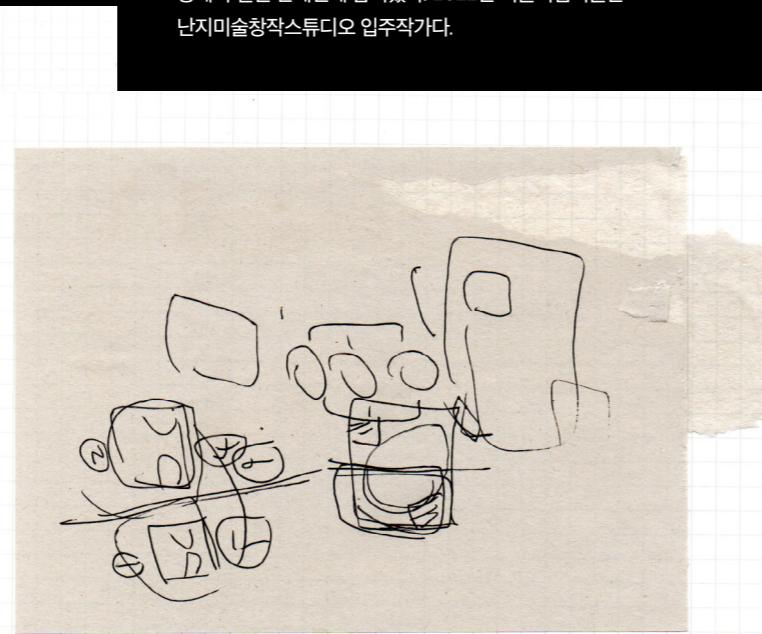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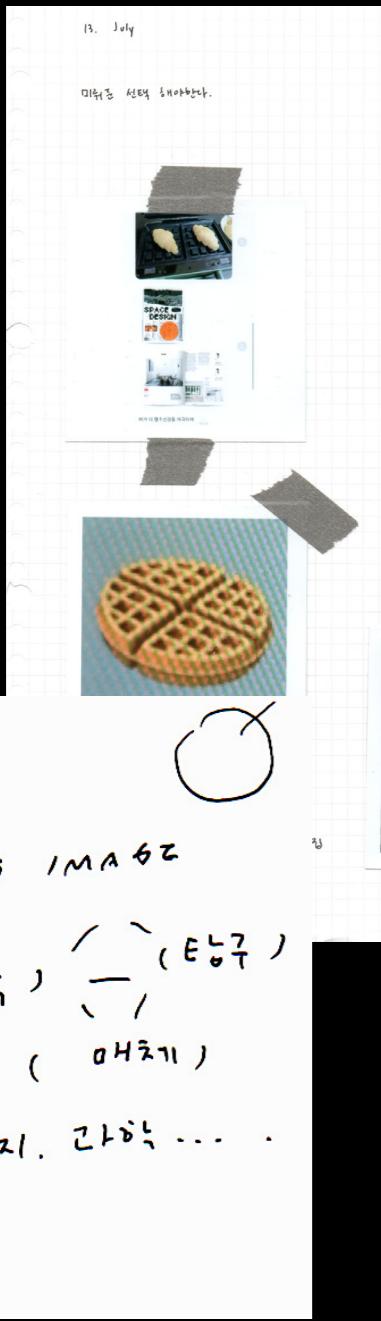


테이블

박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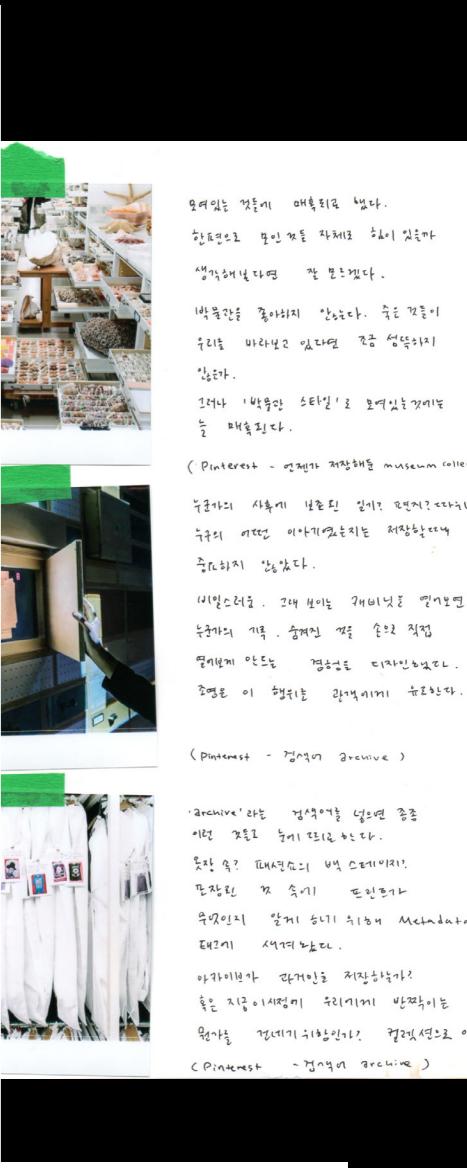
사적 기억-정보-시각 이미지로 구성된 꾸리미를 만드는 일에 호기심을 가진다. 미시사와 거시사, 개인사와 사회사를 미술 작품으로 엮어낸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을 관찰하는 일에 마음을 쓰며 기획하거나 글 쓰거나 편집한다. 개인전 『하드카피 리스트』(Keep in Touch Seoul, 2021)와 『미스터리 애디토리얼』(일현미술관 올지로 스페이스, 2018)을 열었고, 대림미술관, 두산갤러리,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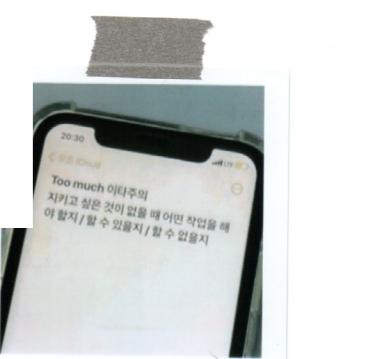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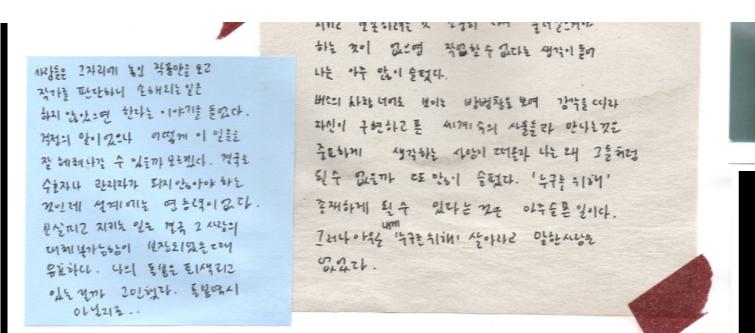
흐르는 시간

2016년 처음 용돈을 모아 샀던 소니(Sony)사의 핸디 캠 'HDR-CX900'은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크기에 무게 또한 약 1kg 정도로 무거웠다. 이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이동의 감각을 느끼게 했던 장면, 흐르고 지나는 풍경을 찍었다. 촬영한 영상을 모아 1분 30초짜리 영상 작업 Floating Ground(2016)를 만들었다. 이후 이 작업에 관한 글을 써야 했을 때 이동으로 인해 기울어진 몸의 시간이 상흔처럼 남아있다고 썼다. 이 시기에 나는 생경한 곳에 방문하거나 물리적인 단위가 다른 공간에 거주하면서 변화한 시간 감각을 영상으로 붙잡으려 했다.

—2022년 8월 20일에 작성한 글을 편집함.



6월, 7월 그리고 8월에 걸쳐 스물다섯 쪽의 노트를 작성했다. 노트에는 이미 완성한 작업을 되돌아보며 쓴 글, 생각의 토막이 담긴 메모, 작은 포토 프린터로 인화한 이미지 자료, 인상과 감정을 기록한 말 등이 담겨있다. 시간을 조금 두고 글을 뒤져나며 작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곱 개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컬렉팅(collecting)'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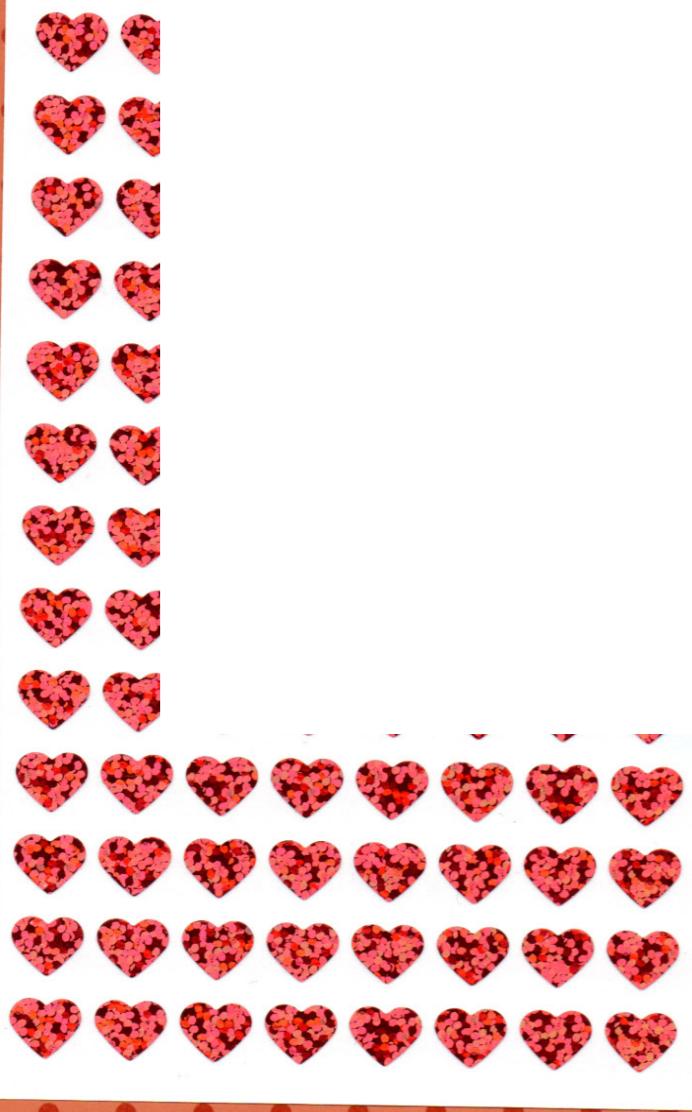




모여 있는 것

AB 사이드(2021), 여성과 가전(2021) 등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시리즈 작업을 제작했을 때 나는 살아 본 적 없는 시대에 관한 신문 기사나 문현을 살펴보곤 했다. 이 시기에는 신문을 모아둔 자료실에 자주 방문했다. 도서관 깊숙한 곳에 숨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갈 때면 방문이 금지된 곳의 침입자처럼 느껴지거나 눈치가 보여 자료 찾는 일이 편 즐겁지가 않았다. 그곳에서 내가 찾아본 자료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발행된 신문 원본이었다. 커다란 폴더에 월별로 정리된 신문이 벽면에 꽂혀 있었다. 은근히 무거운 종이와 한문이 많은 지면 때문에 대부분 읽지 못하고 이미지만 보았던 기억이 있다. 자료실에는 먼지도 너무 많았다. 손끝에 얇고 빛바랜 종이에서 묻어져 나온 잉크가 검댕처럼 묻어서 몹시 불쾌했고, 종이와 종이를 넘길 때 얇은 신문지가 찢어지기라도 했을 때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보존된 것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월간 디자인』과 『행복이 가득한 집』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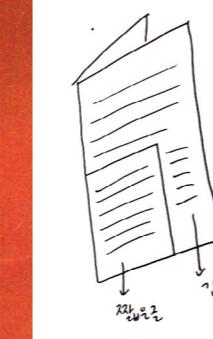
—2022년 7월 15일에 작성한 글을 편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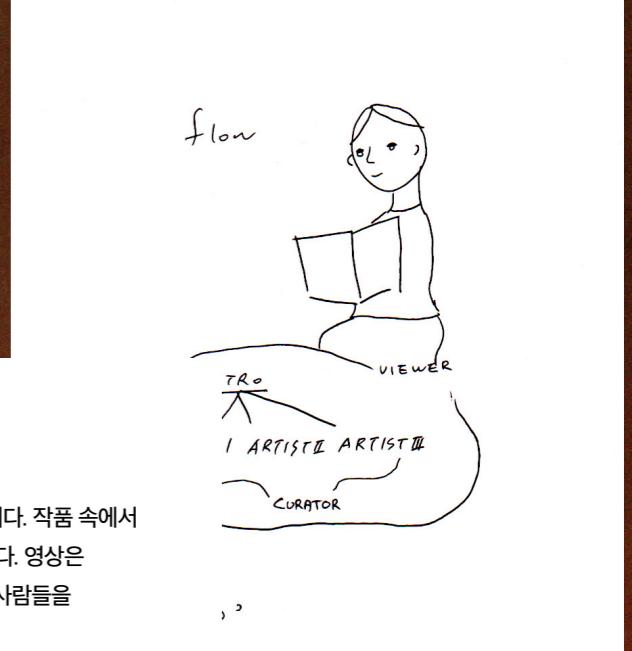
재생

회상과 더불어 무언가를 작업 안에서 재생(playback)하는 일은 나에게 너무 쉬운 일이다. 작품 속에서 시간을 재구성하는 일은 깨진 시간을 재현하는 속임수이지, 시간을 깨는 일은 아니었다. 영상은 '깨진 듯함'을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놓인다. 입구와 출구가 명확하지만, 그 중간에서 사람들을 교란하는 교묘함.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2022년 8월 3일에 작성한 글을 편집함.



학성, 자신감, 구수..





손에 쥐기

어쩌면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손에 꼭 쥐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혹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날짜 없음. 하늘색 정방형 포스트잇에 작성한 메모를 옮겨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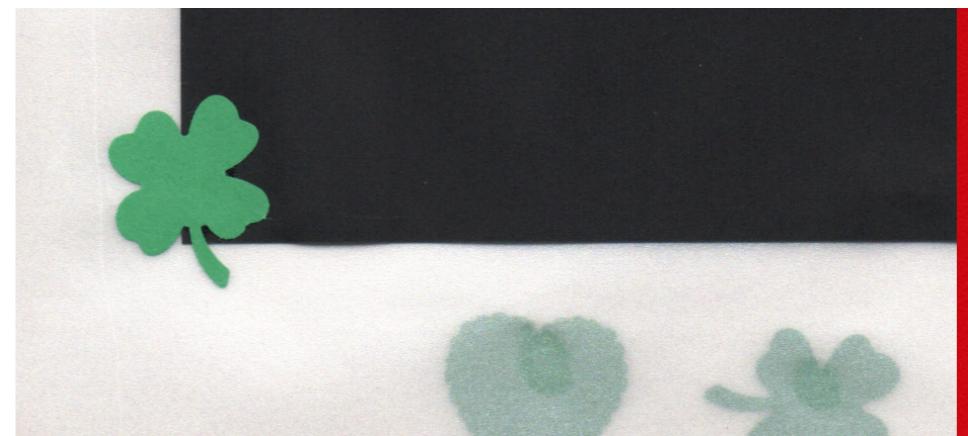
고민

그것이 '꼭 맞게' 되는 순간 '그것에 꼭 맞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아마도 버려지게 되겠지? 이것이 내 근원적인 고민이다. 전시가 구성된 시공간의 맥락, 작품이 놓이는 시공간의 맥락. 언젠가는 이것들을 초월하는 작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꿈꾸게 된다. 문맥(context)과 캔버스 프레임에 관해 생각했다.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모두 어딘가로부터 이탈하고 싶지 않을까? 자신의 맥락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의 작업과 함께 놓일 수 없다면, 작품은 쓸쓸함을 느끼지 않을까.

—2022년 7월 7일, 7월 9일에 작성한 글을 편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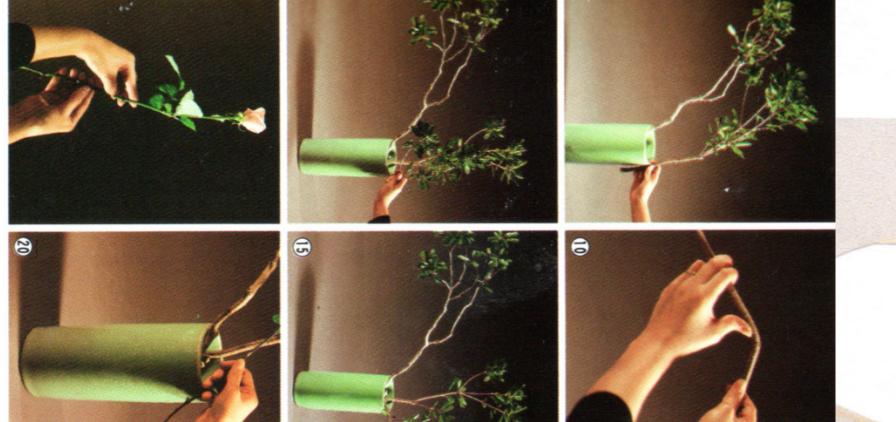


사실 베는 같은 것은 Main Theme과 Variation을 통하여 시온적으로 운영되는데 아닐까. 베이스가 같은 것은 어떤 편의를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톤팅이 —





컴퓨터를 활동하고 있는 여성 프로
토리적인 사고력과 함께
치밀하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함께
작업의식이 될 수 조건이라고.



세계감

왜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헤아려 보려 하는 걸까 깊이 고민해본 적이 있었던가? 누군가가 살았던 시대를 탐험하는 일이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시대를 살펴봐야 비로소 온전히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그 사람을 시대의 일부 중 하나로 축소하고 역사화하는 일이 아닐까? 어떤 문맥 속에서 무엇을 읽을지 기준점을 정하는 일이 작가의 현재와 과거를 만나게 하는 시급함을 드러내는 과정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때밖에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말에 내포된 시급함은 '세계감(世界感)'을 담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볼 수 있을까? 아무튼 과거의 것을 살펴보다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잡념이 사라지는 것은 틀림없다.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완성한다는 일은…

—2022년 7월 15일, 7월 18일에 작성한 글을 편집함.

깨진 시간

깨진 시간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 첫 번째로는 글을 쓸 때. 두 번째로는 과거의 양식이 내 눈앞에서 형형하게 빛날 때다. 과거의 것과 마주칠 때 좀처럼 내가 어느 시간의 측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릴 때가 있다. 이 경험을 기이하다고 말해보자면, 기이하다고 말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마주침은 내게 그리움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또한 먼 미래 언젠가 내게 다가올 것이라 꿈꾸던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2022년 8월 19일에 작성한 글을 편집함.

이미 만들어 눈 작업을 살펴보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눈앞으로 가져다 두고, 그것들에 단단한 형식을 부여한 일은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쓰인 시간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내 작업은 후회를 담지 않는다고 믿는다. 미래를, 현재를, 과거를 이어내는 일. 그런 시도는 내가 이미 마주쳤던 미래를 다시금 떠올리기 위해 꼭 필요했다.

